

전주한지문화축제 결산

문화자원 산업화 · 시민축제 정착

전주한지 산업화와 시민문화축제 정착을 이끌었던 '제22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지난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천년을 뜨고, 천년을 잇다'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7개국 18개팀이 참가한 전주국제한지패션쇼를 비롯해 소리꾼 김나니와 서예가 최부시아, 한국화가 신은미, 두댄스 무용단 등이 특별 공연에 대거 참여하는 등 한지를 소재로 한 품격 있는 축제로 치러졌다.

특히,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주목할만한 성과는 한지산업관을 통해 전주한지의 산업화를 위한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전주패션협회 주관으로 한지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한 '전주한지패션산업의 제도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한지사 제품을 소재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쌍영방직과 헬스케어 한지패션산업의 대표자들이 직접 참여한 한지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나아가,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하는 '전국한지공예대전'에는 210여점의 출품작이 몰리면서 여타 한지공예 공모전에 비해 압도적인 출품수와 치열한 경쟁만큼 수준 높고 우수한 작품들이 몰려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공예부분 심사를 맡았던 김한수 심사위원장은 "작품수도 많았고, 대다수가 수준이 뛰어난 작품이어서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공예대전이 품격 있는 대회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한지를 소재로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패션작품을 선보인 '2018 전주한지패션대전'이 모델들의 화려한 워킹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주한지국제패션쇼는 올해 외국인 디자이너 7명을 포함하여 국내의 유명디자이너 18명이 참가했으며, 전국한지패션 디자인경진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56여명의 한지패션작품과 코스튬플레이패션쇼에서는 학생작가 11개팀이 화려한 조명속에서 한지패션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의 특징은 한지의 전통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람객들이 한지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체험행사를 폭넓게 준비했다는 점이다. 한지장의 전통한지 뜨기 시연, 전통한지공예품 만들기 등을 비롯하여 한지팔터 드림커피, 한지로 만든 꽃등, 모빌, 부채, 꽃받침을 포함한 20여개 한지 관련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또,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단을 초청한 '뿔뿔한지' 희망 비행기 날리기 행사는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지문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주전통한지의 세계화,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금년 축제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좀 더 즐겁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GM군산공장 실직자 자녀 교육비 지원인력 추가 배치

도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 전담 창구 외 고용복지·센터에도 배치... 수업료 등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군산교육지원청에 실직자 자녀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나 교육비 지원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담당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2명의 전담직원이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실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고 9일 밝혔다.

담당인력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 고용복지·센터에 배치됐으며, 연말까지 실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업무를 돌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되고 한국GM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협력업체 및 소상공업 종사자까지 실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전담인력을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군산 외에도 GM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있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원주, 부안, 고창 등 7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도 각각 담당자를 지정,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내에도 담당부서와 담당자

가 지정돼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자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 자녀 ▲인근 요식업·숙박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녀 등이다.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총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정하고 있다.

실직자 자녀에게는 수업료(고교, 1분기 31만8,000원), 학교운영지원비(고교, 1분기 5만4,000원 인박), 수학여행비(초·중·고·특, 최고 13만원), 교육구입비(중·고, 최고 22만원), 방과후교육비(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된다. /기동취재반

도내 고교 교사 80명 진학지도 전문가 육성... 12일 '대입 아카데미' 연수

전북도교육청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도내 고교 교사 80명을 선발해 대입진학지도 전문가로 양성하는 '대입 아카데미' 연수를 12일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대입 아카데미' 연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장 및 대표강사와 전북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입제도 및 대입전

형의 이해를 돕는 기초반(40명)과 대입진학 전문가로 양성하는 심화반(40명)으로 개설하여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16시간 운영된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대입제도 변화 양상 및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입 진학지도 매뉴얼 ▲맞춤형 진학상담의 실제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를 돕는 기초 과정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대입제도의 변화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의 수립 및 운영 방안과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 ▲논술전형의 이해와 지도방법 ▲합격사례를 통한 입시전략과 단위학교의 대응방안 등 전문 과정으로 운영되어 현장 교사들에게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반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변화가 예상되는 대입제도의 개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대입 아카데미 연수는 교사들의 대입진학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개인의 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수"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고교 담임의 대입진학상담을 돕기 위한 자료개발·보급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